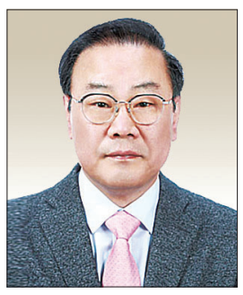
동국대 WISE캠 총장 후보 3人 압축

구본철 · 류완하 · 박용기 교수
법인 이사회서 최종 선임 예정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구본철


류완하


박용기

동국대 WISE캠퍼스를 이끌어갈 차기 총장 후보자가 구본철 · 류완화 · 박용기 교수로 압축됐다.

동국대 WISE총추위(위원장 범해, 이하 WISE총추위)는 11월 7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4차 WISE총추위 회의를 개최해 WISE캠퍼스 총장 후보자를 선출했다.

WISE총추위는 규정에 따라 후보자로 △구본철 글로벌사회경영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류완하 스마트시티융합대학 디자인미술학과 교수 △박용기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교수(가나다순)를 선출하고, 후보자들을 무순위로 법인 이사회에 추천키로 결의했다.

구본철 '전법 성지 캠퍼스 조성'

구본철 후보는 동국대 WISE캠퍼스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 · 박사를 받았다. 모교 교수로 부임한 이래 신문사 주간, 인문대학 부학장 · 학장 대행, 국제교류처장, 입학처장, 교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총장 출마 소견을 통해서는 △전법 · 포교 불교 성지 캠퍼스 △입학자원의 안정적 확보 △교육 혁신대학 △대학 재정 건전성 확보 △상호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역화와 국제화 △문화감성 캠퍼스 조성 등 7가지 핵심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류완하 '특성화 강화 학제 개편'

류완하 후보는 동국대 WISE캠퍼스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를, 계명대 예술대학원에서 미술학 박사를 받았다. 동국대 WISE캠퍼스 도서관장, 평생교육원장, 기획처장을 역임했고, 현재 동국대 WISE캠퍼스 문화예술디자인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류 후보의 총장 공약은 특성화 분야 강화를 위한 학제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글로컬 대학 3.0을 대비해 2차전지, 자동차 부품소재, 스마트 관광 분야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학제를 신설하고, 경주를 기반해 인문, 영상콘텐츠, 웹툰 등을 배우는 문화콘텐츠 학제를 만들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용기 '불교+한의학 연계 사업'

박용기 후보는 동국대 WISE캠퍼스 한의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본초학을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 모교 교수로 부임한 이후 한의과대학 학장, 불자교수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대외협력처장으로 활동 중이다.

박 후보는 불교 정신에 기반한 '5개 추진 전략 10대 실천 전략 과제'를 공약으로 내놨다. 특히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해 불교계, 지자체, 산업계, 동창회가 참여하는 'WISE캠퍼스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기부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불교학과 · 한의학과 · 의학과 · 호텔관광경영학부를 연계한 '불교 웰빙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는 제352회 이사회에서 3인의 후보 가운데 차기 WISE캠퍼스총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차기 동국대 WISE캠퍼스총장 임기는 2024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4년이다.


마타렐라 伊 대통령, 해인사 방문 한국을 국빈 방문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영애인 라우라 마타렐라 여사 등이 11월 9일 해인총림 해인사를 방문했다. 오후 3시 15분께 해인사를 찾은 대통령 일행은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장경각에만 40분 정도 머무르며 큰 관심을 보였다.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과 장경각을 둘러본 마타렐라 대통령은 "귀한 걸 보게 돼 기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은정재단, 나란다 시상…대학 전법기금 1억 기부

11월 4일, 동국대서 개최
교리대회 우수 학생 격려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상임이사 성월 스님(사진 오른쪽)이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대학생 전법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불교계 대표 신행 문화행사인 나란다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이 올해 참가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미래 불교를 이끌어갈 주역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11월 4일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20회 은정장학금 전달식 및 제15회 나란다축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에 앞서 은정문화진흥원은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장 돈관 스님에게 대학생전법기금 1억 원을 쾌척했다. 1억 원 전달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대학생 전법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은정문화진흥원 이사장이자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앞으로 은정재단도 대학생 전법에 매진할 것을 약속하는 의미에서 이뤄졌다.

이날 자승 스님은 상임이사 성월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은정문화진흥원 설립자인 월암당 정대 스님을 떠올리고, 불교중흥을 위한 원력보살의 실천행이었던 큰스님의 불사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스님은 "앞으로 대학생 청년 전법이 불교가 당면한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불교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불교중흥을 위해선 무엇보다 젊은 계층으로 불교가 스며들어야 하며 대학생, 청년 전법 인재불사에 은정재단은 관심을 놓지 않고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은정재단 이사장이자 동국대 건학위원회 고문인 자승 스님의 원력으로 나란다축제를 통해 부처님 법의 씨앗이 심어진 청소년들 또한 대학생 불자가 돼서 향기로운 꽃을 피워낼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동국대는 대학생, 청년 포교가 불교의 생존문제라는 큰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청소년 불자가 대학생, 청년 불자로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정장학금 수여와 함께 본격적인 시상식이 시작됐다. 올해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를 비롯해 무설 스님(동국대 불교학부), 김은후(건국대 화학공학부), 구민재(서원대 상담심리학과), 신의진(아주대 수학과) 학생 등 단체 1곳와 대학생 8명에게 제20회 은정장학금, 불교단체 및 학술연구지원금, 생활격려금 등 총 2900만원이 전달됐다.

나란다축제 단체 대상은 화엄사 어린이법회에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강원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와 청담고등학교가 받았다. 우수상은 호국일승사, 선화여고, 정광고, 봉은사 어린이법회,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칠곡도량, 동대사대부속여중이 수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은 오현수(초림초5, 봉은사), 조서연(청담중2), 이도경(청담고2) 학생이 차지했다. 초등부 12명, 중등부 46명, 고등부 8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나란다 K-댄스경연대회 대상은 정광고 댄스팀 로터스에게 돌아갔다. 이밖에도 데이스타(동대사대부속여중), 투즈원(정광고), 허혜린(대청초) 등 13팀이 입상했다. 군장병독후감 공모전 조계종 총무원장상은 곽상용(육군 5사단) 씨가 수상했으며, 총 15명의 군장병들이 수상의 기쁨을 함께했다. 임은호 기자

종교편향특위, 해미읍성 성지화 시정 촉구

11월 9일, 제12차 회의서 논의
역사 배경 · 가치 조명 대신
천주교 성지로 과도한 부각
안내표지판 수정 공문 발송키로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종교편향특위)가 가톨릭 성지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산 해미읍성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총무원 사회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 발송 등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종교편향특위는 11월 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사진〉 회의에는 위원장 선광 스님을 비롯해 위원 종원 스님, 법성 스님, 설해 스님, 교육부장 덕림 스님, 사회국장 현우 스님 등이 참석했다.

종교편향특위는 이날 총무원 사회부로부터 천주교 박해와 순교 역사만 덧씌워져 성지화가 추진되고 있는 해미읍성과 인근 홍주읍성, 내포 지역 현황을 보고 받았다. 사회부에 따르면 현재 해미읍성에는 '십자가의 길' 순례길이 조성돼 있으며, 순례길 곳곳에 순교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읍성의 역사적 배경과 가치는 외면된 채 천주교 순교성지로만 과도하게 부각된 안내표지판도 적지 않다.

위원장 선광 스님은 "지자체가 역사적 관점 없이 무분별하게 순교 상징물 등을 설치하고 성지화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드러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안내 표지판 수정 등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 설해 스님도 "현재 해미읍성에 세워진 안내판은 천주교의 역사만을 담고 있고, 이를 성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후대가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공공 안내판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문제를 지적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영희 사회부 차장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다각도로 검토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기독교계가 교회시설을 이용해 추진하는 '유 · 아동 돌봄사업'과 관련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종교편향특위는 조계종 중앙종회가 11월 2일 제229회 정기회에서 채택한 '교회 내 영유아 돌봄시설 추진 철회 성명서'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달키로 했다.

이밖에도 윤석열 정부의 편향된 고위공직자 인사와 노아의 방주 모형 한국 유치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한국전통 자연치유 대체요법
뇌와 장을 살리는 힐링마사지
암, 당뇨, 고혈압, 치매, 우울증 등을 자연치유 하는 쾌뇌장 힐링요법
관리프로그램
쾌장경락마사지 (8만원)
기공치유
성인병관리
심리치유
오장육부 기능회복 (간, 심장, 비장, 폐, 위, 신장)
복부비만 등 복부관리
목, 어깨, 골반, 다리 등 각종 통증관리
스트레스 만성피로
각종 뇌질환(우울증 등) 관리
노화 예방, 장수 회춘 관리
영적치유 만트라명상


약손월드힐링센터 화성지부(향남) 010-7302-5620

불공천도, 단기속성 학인모집
수 강 안 내
〈강의 일정 시간표〉
1.기본반 : 불공예경. 새벽도량, 사시예경, 저녁예불. 1주간 (4박5일-월화, 목금)
2.정기반 : 천도의식. 시련,대령, 관욕에서 소대가지. 1주간 (5박6일-월화, 목금토)
*숙식 제공. *청강 연장수업료 30만.
*각 반 수업료 120만원. *충원 시 즉시 개강 함.
준 비 물 : 가사, 장삼, 요령, 목탁
장 소 : 대한불교 삼덕사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1021
강 사 : 금륜당 화엄
전 화 : 010-7387-2833

주최 대한불교 삼성고불대학